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Mother-Infant Interaction Styles Associated with Infant Development*

박성연(Sung-Yun Park)¹⁾

서소정(So-Jung Soe)²⁾

Bornstein, M.(NICHD, U.S.A)³⁾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 mothers and their first-born infants from middle class families living in Seoul. Mother-infant interactions were filmed at 5 and 13 months of age during naturalistic play situations at home. Questionnaire data were also collected. Results revealed that both maternal didactic and social interactions decreased over the 5 to 13 month time period but(only for infants) object-oriented interaction increased over time. Infant object-oriented interaction at 13 months was predicted by cumulative effects of both mother's social stimulation at 5 months and infant social interaction at 13 months. Infant's social interaction at 13 months was predicted by infant's object-oriented interaction at 13 months. Infant language development was predicted by mother's didactic stimulation.

Key Words : 어머니와 영아간 상호작용(mother-infant interaction), 영아발달(infant development), 양육 행동(parenting), 상호작용행동(interaction style), 언어 발달(language development).

I. 서론

출생 후 첫 2-3년에 이르는 영아기의 발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발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민감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어, 생의 초기경험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영아가 지닌 여러 가지 발달적 특성상 연구 방법론적 문제에서 어려움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3-041-C0039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²⁾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교수

³⁾ Head, Child and Family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Sung-Yu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이 크기 때문에 유아기나 아동기 등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드물게 연구되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문혁준, 2005). 더욱이 초기경험의 중요성을 입증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나 아동기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 영아기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보다는 양육자의 반응성이나 온정성 등 일반적인 양육태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는 대체로 부모의 인성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서 시간의 경과나 상황에 관계없이 거의 일관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양육행동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초기경험이 모든 발달영역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지적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 등 어떤 특정영역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Belsky, Gilstrap, & Rovine, 1984; Gottfried, 1984), 구체적인 상호작용행동에 따른 특정한 발달적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보면 양육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영아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양육행동 특성이 영아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아발달에 미치는 양육의 효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초기 경험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택적 영향'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몇몇 연구들은 초기경험의 효과에 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영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영아를 위한 양육행동은 부모들이 더 성장한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과는 다른 측면을 지니게 된다. Bornstein(2002)에 의하면 영아에 대한

양육행동은 신체적인 돌봄과 관련된 양육적인 측면(Nurturant caregiving), 아기와 양육자 두 사람간의 대면적인 관계 및 참여행동과 관련된 사회적인 양육측면(Social caregiving), 아기와 양육자 두 사람 외의 환경에 대한 이해나 관심을 갖도록 언어적 자극을 주는 등 가르치는 측면(Didactic caregiving), 그리고 장난감 등 물질적 환경을 마련해 주거나 제한하는 물질적 측면(Material caregiving)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각각의 양육측면들은 부모의 인성적 특성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등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는 아기의 성이나 연령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다. 즉, 특정한 상호작용양상(interaction mode)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그 빈도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며, 아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Bornstein과 Tamis-LeMonda (1990)의 연구에 의하면,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인(social) 상호작용은 생후 2개월과 5개월 사이에 안정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물체 지향적인 가르치는(didactic) 행동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안정성을 보였다(instability vs stability). 또한 아기가 생후 2개월 때는 사회적행동이나 물체지향적인 행동을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하였으나, 5개월에 이르러는 얼굴을 마주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점차 감소하는 한편, 물체의 특성이나 대상물, 환경적 자극에 아기의 관심을 돌리는 물체 지향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continuity vs discontinuity). 이와 유사하게 부모와 아기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Belsky 등(1984)도 어머니 행동은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9개월에 걸쳐 안정적임을 보고하는 한편, 아기의 연령 증가에 따라 애정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대신 물체나 환경적 자극에 관심을 두게 하는 상호

작용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목적 중 하나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이 물체지향적(또는 가르치는) 행동과 사회지향적 행동양상에서 안정성 또는 연속성을 보이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한편 발달이론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독자성(Uniqueness)에 관심을 둔 서구의 이론가나 연구자들은 주로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과 호흡을 맞추어 양육자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들은 인간행동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아동, 나아가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양육행동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육자가 언제, 어떻게 아기를 돌보고, 얼마나 아기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자유를 주며, 얼마나 아기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키우는지, 또는 얼마나 제한적 또는 과보호적으로 키우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강조해서 키우는지 등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위에 기술한 네 가지 양육행동 측면 중 부모라면 누구나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양육적' 측면이나 '물질적'인 측면의 양육과는 달리, '사회적' 측면의 양육이나 '가르치는' 측면은 동서양 문화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의 차이는 동서양의 양육가치관이나 철학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양에서는 양육목표에서 독립심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분신으로 보며 양육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일본 어머니들은 아기의 성에 관계없이 정서적인 성숙이나 자아통제력, 사회적인 규범을 강조하는데 반해

미국 어머니들은 자율성과 독립성 주장성을 강조해서 아기들을 키운다(Azuma, 1986; Bornstein, Azuma, Tamis-LeMonda, & Ogino, 1990). 또한 일본 어머니는 영아와의 놀이에서 아기가 열심히 어머니와 같이 사회적인 상호작용하기를 격려하지만 미국어머니들은 놀이상황에서 탐색활동이나 장난감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며 논다(Bornstein, Tamis-LeMonda, Tal, Ludemann, Toda, Rahn, Pecheux, Azuma & Vardi, 1992; Tamis-LeMonda, Bornstrin, Cypher, Toda, & Ogino, 1992).

따라서 문화에 따른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각 문화에서 자라는 아동의 발달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가 물체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행동을 주로 했을 경우 5개월 된 영아도 물체나 사물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사회적인 관심을 더 많아 보였던 경우는 아기도 물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Bornstein 등, 1990). 결국 아기에 대한 양육자의 양육행동 및 상호작용은 부모에 대한 영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Leaper, 2002) 부모의 적극적 참여나 자극은 아기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기(Maccoby & Martin, 1983) 때문에, 양육자의 행동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발달이나 인지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물체 중심적인 상호작용을 한 어머니의 아기와 사회적 관계 중심적인 상호작용을 한 어머니의 아기는 그 발달적 결과에서 다를 것이며, 어머니와 아기간의 상호작용방식의 문화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동서양의 인간발달이나 행동발달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현대화 정도나 아동중심적인 가치관등 두 국가 간에 서로 유사성이 크다 해도 사회적, 역사적으

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는 양육의 목표가 다르기(Park & Cheah, 2003) 때문에 우리나라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남아에게 더 반응적이라는(Biringer, Emde, Brown, Lowe, Myers, & Nelson, 1999; Leaper, 2002;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결과가 있는가하면, 전반적으로 남아와 여아에 대한 양육행동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Bornstein, 2002; Leaper, 2002). 특히 서구의 가정관찰 연구에서는 부모와 아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성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으나(Bornstein 등, 1992; Belsky 등, 1984),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힘들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 양상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메카니즘은 대략 특수성 원리와 교류적 상호작용 원리로 설명되는데 이 두 가지 원리 모두 영아기부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유형은 아기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특수성 원리(specificity principle)에 의하면, 부모의 일반적이 아닌 특정한 행동특성은 아기의 일반적이 아닌 특정한 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기와의 상호작용에서 엄마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격려하는 경우, 그 아기는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엄마에게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아기에게 물체에 관심을 보이기를 격려한 어머니의 아기는 엄마에게 관심을 보이기보다 외적인 환경이나 물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Bornstein & Tamis-LeMonda, 1990).

유사한 맥락에서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아기는 어휘력이 높고 운동능력은 낮다(Tamis-LeMonda & Bornstein, 1994)고 보고된다.

상호작용양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영아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양육행동방식이나 상호작용방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문화에 따른 어머니나 영아의 행동특성 등 영아발달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개발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와 영아간 일상적인 상호작용방식, 특히 그동안 거의 연구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적' 측면과 '가르치는'(물체지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이 영아의 발달(사회적 행동, 환경 탐색행동,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어머니-영아간 상호작용이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델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초기경험 모델(early experience model)은 아기의 어렸을 적 경험이 계속 이후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한다. 둘째, 동시적 경험 모델(contemporary experience model)은 부모의 영향은 초기 경험에 관계 없이 어떤 특정시기에서의 양육이 어떤 발달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5개월 때의 어머니의 '가르치는' 상호작용은 5개월 된 영아의 환경탐색능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Bornstein & Tamis-LeMonda, 1990; Legerstee, Anderson, & Schaffer, 1998). 세 번째 모델은 누적적/안정적 환경 모델(cumulative/additive/stable environment model)이다(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 예를 들면, 생후 2개월 때와 5개월 때의 양육행동은 모두 누적

이 되어 5개월 때의 영아의 행동발달과 관련이 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델 모두에 비추어 초기 양육경험과 현재의 양육경험, 그리고 누적적인 양육경험 모두의 영향을 고려하여 영아의 발달을 단기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별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던 어머니-영아간 상호작용방식을 연구하고 그로 인한 발달적 결과를 규명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나, 나아가 동서양(미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차이 및 유사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간 공동연구의 성격도 지닌다. 이러한 특성상 연구방법이나 내용에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 내용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기 출생 후 5개월에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양식은 영아의 성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2> 생후 5개월 때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양식은 13개월에도 그대로 유지되는가? 또는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3> 생후 5개월 및 13개월의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양식은 13개월에서의 영아의 언어적 발달이나 비언어적 행동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 상류층 가정의 생후 5개월 된 영아(첫아이)와 그 어머니 31쌍을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어머니와 아기간의 상호작용양식은 같은 문화권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유무나 양육자가 어머니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는 어머니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Bornstein, 2002), 표집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류층 비취업모로 한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은 어머니의 특성 외에도 아기의 성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생순위는 첫아이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대상 아기는 남아와 여아 각각 반반으로 표집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생후 5개월 이전의 첫아기를 가진 중상류층 비취업모 50명을 목표로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3~4개월에 걸쳐 중상류층 가정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산부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육아 사이트를 통해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질문지 자료와 단기 종단적 연구 설계, 그리고 첫아기로 국한하고 5개월과 13개월 두 차례에 걸친 가정 관찰이라는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피험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은 35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나마 8개월간의 연구기간 중 4명의 피험자가 13개월의 비디오 촬영을 거부하거나 질문지의 일부를 완성하지 않아 본 연구를 위한 최종적인 자료 분석에서는 31쌍(남아-어머니 13쌍, 여아-어머니 18쌍)의 자료만이 이용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33세(SD=2.9)였으며, 교육수준은 평균 15년(SD=.96)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t검증 결과,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은 남아와 여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두 가지 상호작용행동 유형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결과분석에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으로 확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첫 아기가 생후 5개월이 되었을 때 첫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생후 13개월 때 재방문하여 각 연령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디오 촬영 및 관찰 그리고 질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을 위해 3명의 대학원생 관찰자는 책임연구자로부터 2주 동안 Bornstein (1999)의 연구설계 지침에 따른 훈련을 받았다. 관찰자는 첫 가정방문 시(출생 후 5개월) 연구대상 어머니들로부터 연구에 참가한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며, 생후 5개월과 13개월에 걸친 1차와 2차 자료수집 시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또한 각 관찰자는 비디오 녹화를 마친 후,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지 자료(가족상황 및 사회인구학적 내용에 관한 질문지 등)를 어머니에게 배부한 후 2주 후에 우편으로 반송 받음으로써 질문지자료를 수집하였다. 언어 발달에 관한 척도는 생후 12개월경에 각 가정으로 우송하여 13개월 방문 시 회수하였으며,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마지막 촬영단계인 13개월 방문 시, 일정한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1차(생후 5개월) 자료수집

대상 아기가 5개월이 되었을 때(5개월 +/-1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의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관찰하기 위해 사전에 전화로 방문일시를 정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하였다. 방문시간은 아기가 깨어서 노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아기와 어머니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60분 동안에 걸친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비디오 촬영 전에 관찰자는 어머니에게 촬영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관찰자를 무시한 채 아기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관찰자는 촬영

시 아기가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도록 되도록 움직임을 적게 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주고 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다.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면으로는 기존의 집에 있던 장난감을 이용하였으며 어머니에게는 평소의 행동과 같이 아기를 혼자 두거나 전화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동을 허용하였다.

5개월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 양식에 관한 부호화

가정관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간 일상적인 상호작용 행동 중 어머니의 행동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가르치는' 상호작용으로 대별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코딩매뉴얼(박성연, Bornstein & 서소정, 2004)에 근거하여 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즉 어머니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1차 관찰시 60분 동안 일어나는 어머니의 각 행동은 특정행동이 나타나는 빈도를 고려하여 10분 또는 20분 간격으로 관찰 단위시간을 나누었으며, 각 단위시간 내에서는 특정행동의 지속시간정도에 따라 1점부터 7점까지로 부호화하였다(event-based coding). 예를 들어 관찰 단위 10분 동안 어머니의 사회적 행동이 전혀 없으면 1점, 관찰단위 10분 동안 8분 이상이면 7점을 부가하였다. 어머니 각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사회적'인 상호작용 : 신체적 접촉, 입맞춤, 쳐다보기, 웃기, 일상적인 소리내기 활동 등 아기의 관심을 양육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상호작용 방식을 포함한다.
- b) '가르치는' 상호작용 : 물체이름 말하기, 주의를 물체로 돌리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등 아기의 관심을 환경으로 돌리는 상호작용 방식을 포함한다.

한편 영아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역시, 행동의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20분 간격으로 나누어 양육자 또는 물체에 대해 미소 띤 얼굴 표정이나 응시, 긍정적인 발성 등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사회지향적인 행동과 물체지향적인 행동으로 나누었다.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단위시간 내에서는 특정행동의 지속 시간 정도에 따라 1점부터 7점까지로 부호화하였다. 예를 들어 관찰단위 20분 동안 아래에 기술한 영아의 행동이 전혀 없으면 1점, 관찰단위 10분 동안 8분 이상이면 7점을 부가하였다. 영아의 각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사회적'인 상호작용 : 어머니의 얼굴이나 머리를 쳐다보며 긍정적인 발성이나 미소를 지음으로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포함한다.
- b) '물체지향적'인 상호작용 : 영아가 어머니의 얼굴대신 물체에 관심을 보여 물체를 응시하거나 만지려하거나 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2차(생후 13개월) 자료수집

영아가 13개월 되었을 때 1차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가정 내에서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의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양식을 관찰하며 비디오 녹화를 통해 실제적 행동적인 상호작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13개월에는 아기가 혼자 노는 놀이상황을 10분간 관찰 녹화한 후, 어머니와 아기 간 놀이 상황을 15분 동안 관찰하였다. 아기혼자 놀이상황을 위해서는 국제 비교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장난감(인형, 담요 주전자, 찻잔2개와 받침, 숟가락 2개, 전화기, 기차, 부드러운 공, 겹쳐 넣을 수 있는 컵 5개, 작은 아기용 그림책 2권)을 사용하

여 아기가 혼자 놀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주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채 곁에 있도록 하였다. 아기 혼자놀이(10분) 후 다음 15분 동안은 어머니와 아기가 같은 장난감을 사용해 놀이를 하도록 어머니께 부탁하였다. 또한 아기가 생후 12개월 되었을 때 각 가정으로 우송한 영아의 언어발달을 측정하는 질문지(MCDI-K; 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Hartung, & Reilly, 1993; Kwak, 2003)는 2차 가정방문 시 회수하였다.

13개월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 양식에 관한 부호화

영아와 어머니간 상호작용 및 영아 혼자놀이 비디오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코딩 매뉴얼(박성연 등, 2004)에 근거하여 부호화하였으며, 5개월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 관찰에서 자유놀이 시간에 어머니와 영아간 상호작용행동을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가르치는/물체지향적인 상호작용으로 대별하여 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13개월시 어머니와 영아간 15분간의 놀이상황만을 각 5분 단위로 나누어 각 행동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7점으로 점수화(event-based coding)하여 합산하였다. 각 행동에 대한 정의는 5개월의 경우와 같다.

한편 1차와 2차에 걸쳐 수집된 각 개월의 비디오 자료에 대해서는 숙련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4명의 대학원생 조교가 2명씩 한 팀을 이루어 한 팀은 영아의 상호작용을, 또 다른 한 팀은 어머니의 상호작용만을 집중적으로 부호화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각 팀별로 2주간의 관찰자 훈련과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Irwin과 Bushnell(1980)에 근거한 영아 및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5 ~ .95로 범위로 나타났다.

MCDI-K 척도를 통한 언어발달 평가

영아와 어머니간 상호작용방식과 13개월 영아의 언어발달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한국형으로 수정 보완된 MCDI-K (Kwak, 2003)를 통해 영아의 어휘력을 측정하였다. MCDI-K는 MCDI(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Hartung, & Reilly, 1993)에 한국어 자료를 첨가하거나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낱말이 삭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284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의 어휘점수는 어머니에게 영아가 정확하게 또는 거의 유사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은 표현단어로, 영아가 그 단어를 이해하거나 알고만 있는 단어일 경우 수용단어로 보고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언어발달 총점은 수용 또는 표현 언어로 체크된 단어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3. 자료 분석

비디오 및 질문지 자료에 대해서는 기술통계치를 산출하며 연구문제에 따라서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 t 검증, MANOVA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영아의 성에 따른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 방식

<연구문제 1> 인 생후 5개월에 어머니와 영아간 상호작용양식은 영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를 규명하기 위해 어머니가 영아에게 하는 행동과 영아가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 각각에 대해 상호작용의 2가지 방식(within style; 가르치

는/물체지향적 행동, 사회적 행동)과 영아의 성(between gender), 그리고 이 둘의 interaction을 포함한 2×2 factorial design으로 분석하였다.

1) 어머니의 행동

어머니가 영아에게 하는 상호작용행동에서는 영아의 성에 따른 주 효과[$F(1, 29) = 5.51, p < .05$]와 성과 상호작용 방식의 상호작용효과[$F(1, 29) = 5.58, p < .05$]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후 5개월 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가르치는 행동($M = 23.35; SD = 6.53$)과 사회적인 행동($M = 22.97; SD = 5.25$)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post hoc 분석으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르치는 행동에서만 특히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는 5개월 된 영아를 대할 때,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물체나 환경에 아기의 관심을 유도하는(예 : 물건을 말하기, 주의를 물체로 돌리기, 손가락으로 물체를 가리키기) 등 가르치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영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5개월)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남아(N=13) 여아(N=18)		t
	M (SD)	M (SD)	
가르치는 행동	19.62(6.13)	26.06(5.51)	3.06**
사회적인 행동	21.92(7.10)	23.72(3.41)	.94
총 점	41.54(11.40)	49.78(8.18)	2.35*

* $p < .05$ ** $p < .01$

2) 영아의 행동

영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내는 행동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방식의 주효과[$F(1, 29) = 91.36, p < .000$]가 나타났으며 영아의 성의 주

<표 2> 영아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행동(5개월)

영아의 상호작용행동	영아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행동(5개월)		t
	남아(N=13) M (SD)	여아(N=18) M (SD)	
물체지향적 행동	28.38(7.60)	27.83(6.71)	.21
사회적인 행동	19.46(4.96)	19.00(4.64)	.27
총 점	47.85(11.69)	46.83(10.17)	.26

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생후 5개월된 영아들은 영아의 성에 관계없이 남아, 여아 모두 사회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물체 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였다 <표 2>.

2.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방식의 안정성

연구문제 2인 생후 5개월 때의 어머니-영아간 상호작용 양식이 13개월에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지(stability)와 8개월(생후 5개월에서 13개월)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그대로 지속되는지 또는 변화하는지를(continuity and change) 규명하고자 Bornstein과 Tamis-LeMonda(1990)에 근거하여 안정성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연속성(지속성)을 위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양식의 안정성(stability)과 연속성(continuity)

	stability (r) 5 to 13	continuity		t 5 to 13	sig.
		5개월 M (range)	13개월 M (range)		
어머니 자극행동					
가르치는 행동	.32 [†]	23.95(5-34)	18.19(9-21)	4.51***	.000
사회적	-.05	22.97(10-32)	12.10(8-18)	9.77***	.000
영아의 탐색행동					
물체지향적	-.02	28.06(16-40)	35.74(23-45)	-4.96***	.000
사회적	-.20	19.19(10-26)	19.61(13-25)	-.416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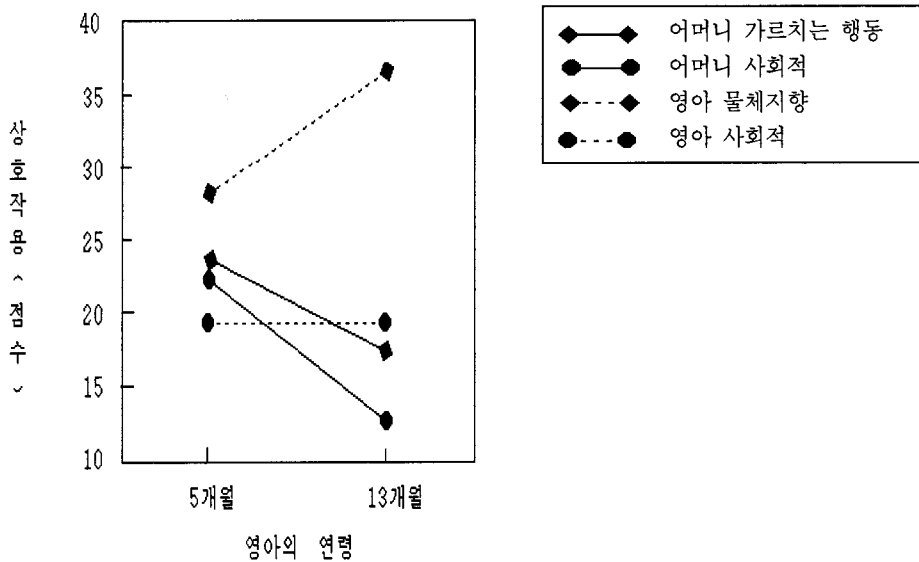
[†] p<.10 ***p<.001

1) 안정성(stability)

영아가 생후 5개월 때와 13개월이 되었을 때 보이는 어머니의 상호작용방식은 가르치는 행동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나타냈으나 (r=.32, p=.08) 사회적 상호작용행동은 통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아의 경우는 물체지향적 행동 및 사회적 행동 방식 모두에서 생후 5개월과 13개월 사이에 통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 연속성 및 변화(continuity and change)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가르치는 행동과 사회적행동 모두에서 시간의 경과(생후 5개월에서 13개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영아를 대할 때 생후 5개월 때보다는 생후 13개월 때 가르치는 행동 및 사회적 행동 모두에 더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를 보였다. 한편, 영아의 경우에는 생후 5개월보다는 생후 13개월에 물체 지향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인 행동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표 3><그림 1>.



<그림 1>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행동의 연속성 및 변화

3. 어머니 영아 간 상호작용방식과 영아 발달간의 관계

연구문제 3은 생후 5개월 및 13개월의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 방식이 13개월 때의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앞서 고찰한 세 가지 모델을 기초로 어머니-영아간 상호작용이 영아의 발달(물체 지향적, 사회적 행동 및 언어 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즉 1) 영아의 이전의 경험이 계속 이후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예 : 어머니의 5개월 때 가르치는 행동은 영아의 13개월 때 물체지향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model 1); 2) 영아의 13개월 때의 경험은 같은 시기의 특정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예 : 13개월 때의 어머니의 사회적인 상호작용행동은 13개월 때 영아의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model 2); 3) 5개월 때와 13개월 때의 영아의 경험은 누적되어 13개월 때의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 5개월 및 13개월 때의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은 13개월 때의 영아의 물체지향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model 3).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영아의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경로를 나타내는 위의 세 가지 모델 검증을 위하여 생후 5개월과 13개월에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양식을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어머니에서 영아)과 영아의 상호작용행동(영아에서 어머니)으로 구분하고 모델검증의 사전단계로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5개월 및 13개월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 1) 5개월 때 영아의 사회적 행동과 같은 시기 영아의 물체 지향적 행동($r=.65, p<.01$), 2) 13개월 때 영아의 사회적 행동과 같은 시기 영아의 물체 지향적 행동($r=-.47, p<.05$), 3) 5개월 때 어머니의 사회적 행동과 13개월 때 영아의 물체 지향적 행동($r=-.36, p<.05$), 4) 5개월 때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과 13개월

<표 4> 생후 5개월과 13개월 때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영아의 상호작용행동									
1. 5개월 물체지향	1								
2. 5개월 사회적	.65**	1							
3. 13개월 물체지향	-.02	.00	1						
4. 13개월 사회적	.03	-.20	-.47*	1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5. 5개월 가르치는 행동	-.19	-.01	-.05	.00	1				
6. 5개월 사회적	-.06	.18	-.36*	.13	.54**	1			
7. 13개월 가르치는 행동	-.07	-.14	.06	-.20	.32 [†]	.17	1		
8. 13개월 사회적	.04	-.10	.05	.16	-.24	-.05	-.30 [†]	1	
9. 13개월 영아 언어발달	-.02	-.11	-.14	-.04	.42*	.28	.01	.17	1
평균	28.06	19.19	35.74	19.61	23.35	22.97	18.19	12.10	132.74
표준편차	6.98	4.70	4.91	2.26	6.53	5.25	3.58	3.03	87.44

[†] $p < .10$ * $p < .05$ ** $p < .01$

때 영아의 언어발달($r = .42, p < .05$), 5) 5개월 때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과 같은 시기 어머니의 사회적 행동($r = .54, p < .01$), 6) 5개월 때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과 13개월 때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r = .32, p < .10$), 그리고 7) 5개월 때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과 13개월 때 어머니의 사회적 행

동($r = -.30, p < .10$).

한편, 어머니-영아간 상호작용이 영아의 각 발달 영역(물체지향적, 사회적행동 및 언어발달)에 미칠 수 있는 경로에 관한 가능한 세 가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한 관계를 보인 연구변인들만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표 5> 13개월 영아발달(물체지향적, 사회적 그리고 언어)을 예측하는 모델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변 인	F Change	R-square	R-square Change	Model F
13개월 영아의 물체지향적 탐색활동				
5개월 영아의 물체지향 (model 1)	.01	.00	.00	.01
5개월 어머니의 사회적 (model 1)	4.34*	.14	.14	2.18
13개월 영아의 사회적 (model 2)	7.19*	.32	.18	4.17*
13개월 영아의 사회적 탐색활동				
13개월 영아의 물체지향 (model 2)	.00	.22	.00	8.35**
13개월 영아의 언어발달				
5개월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 (model 1)	.00	.18	.00	6.16*

* $p < .05$ ** $p < .01$

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살펴본 있었는데, 분석에 투입된 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모두 $r=.5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자귀회귀 현상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이 계수의 범위가 2.00~2.27로 나타나 자귀회귀 현상의 부재에 대한 기본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기본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13개월 때 영아의 각 발달 영역(물체적, 사회적 및 언어적)을 예측하는 세 가지 모델은 다음과 같이 지지되었다. 첫째, 13개월 영아의 물체 지향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이전 5개월의 어머니의 사회적 행동과 13개월 영아의 사회 지향적 행동의 누적된 영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model 3). 둘째, 13개월 영아의 사회적 탐색활동을 예측하는 것은 같은 시기 영아의 물체 지향적 탐색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model 2). 마지막으로, 13개월 영아의 언어 발달은 5개월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에 의해 영향력 있게 예측되었다(model 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5개월에서 13개월까지 8개월간의 걸친 단기 종단적인 연구로 아기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기의 연령증가에 따라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는 지속적인 양상을 나타내는지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5개월과 13개월 때의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방식이 13개월 때의 아기의 언어적, 비언어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두 가지 형태(가르치는 행동과 사회적 자극행동)의 상호작용행동 중 어머니의 사회적 행동은 아기의 성별과 관계없이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였지만, 가르치는 행동은 영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는 5개월 영아에 대한 행동에서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물건을 치칭하거나 보여주는 등 가르치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 앞서 고찰하였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기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비 일관적 이어서 남아에게 더 반응적이라는 연구와 함께 남아와 여아에 대한 양육행동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특히 영아기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가르치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직접적인 비교나 해석은 불가능하다. 다만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여아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더 많이 주며 남아에게는 정서적인 조절에 더 많은 강요점을 둔다는 Leaper (2002)의 고찰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생후 5개월 된 영아의 행동에서는 물체 지향적인 행동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 행동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ote와 Bornstein(2001)이 지적하였듯이 5개월 경 어린 아기들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탐색활동에서 덜 조직적이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성별에 따른 사회화 방식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영아의 물체 지향적 또는 사회적 행동은 5개월에서 13개월간에 걸쳐 안정적이지 않았다(instability). 예를 들어 아기에 따라 5개월에는 상당히 물체 지향적이었으나 13개월에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인 내 변화를

보면, 영아들은 5개월에서 13개월 사이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물체지향적인 행동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던 반면에 사회적인 행동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개월과 5개월 사이에 영아의 물체지향 행동이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었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Bornstein & Tamis-LeMonda, 1990) 영아들이 점차적으로 신체 운동적, 지적 능력에서의 발달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은 가르치는 행동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stability)을 나타냈으나 사회지향적 행동에서는 불안정성(instability)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생후 5개월 때 가르치는 행동을 많이 하던 어머니는 13개월 때 역시 가르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회지향적 행동에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인 내 변화를 볼 때, 5개월에서 13개월까지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들은 가르치는 행동과 사회지향적인 행동에서 상당한 감소를 나타내 상호작용행동의 비연속성(discontinuity)을 보였다. 이외에도 어머니들은 아기가 생후 5개월일 때는 가르치는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하였으나, 13개월이 되었을 때는 영아에게 사회적인 자극보다는 물체지향적인 가르치는 자극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는 아기에게 상대적으로 물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한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들(Belsky 등, 1984; Bornstein & Tamis-LeMonda, 1990)을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이미 5개월에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당히 감소하는 한편, 환경에 관심을 돌리도록 자극을 주는 행동이 증가했다는 미국연구 결과(Bornstein & Tamis-LeMonda,

1990)와는 달리 우리나라 어머니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은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서 사회지향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에서는 독립성을 강조해서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물체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 1980). 또한 미국과 일본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Bornstein, Azuma, Tamis LeMonda, & Ogino, 1990)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상호작용 방식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생후 5개월 일 때, 어머니의 가르치는 행동은 사회지향적인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가르치는 행동을 하는 어머니는 사회적인 자극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상호작용방식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두 가지 상호작용을 다 중요시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상호작용을 다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는 Cote와 Bornstein(2001)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그러나 13개월의 경우에는 가르치는/물체지향적인 참여가 증가하면 사회지향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기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중요시하는 행동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13개월 영아의 물체 지향적 탐색행동과 사회지향적인 행동, 그리고 언어 발달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발달적 경로를 예측한 결과, 13개월 영아의 물체 지향적 탐색행동 발달을 예측

하는 변인은 초기(5개월)의 어머니의 사회적 자극행동과 13개월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개월 영아의 사회적 탐색행동은 13개월의 물체지향적 행동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13개월 영아의 물체 탐색적 행동은 어머니의 사회적 자극 행동과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누적적 효과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영아의 물체 지향적 탐색행동의 발달은 사회적 행동과 독립적인 발달 내용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계 일본인 영아에게서 나타난 사회적 행동과 물체 탐색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Cote & Bornstein, 2001)를 지지한다. 또한 위와 같은 비언어적인 측면 외에도 언어적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는 생후 5개월 때의 어머니의 가르치는 상호작용행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Tamis-LeMonda & Bornstein, 1994)에서도 나타났듯이, 13개월의 언어발달은 초기의 상호작용행동 중 구체적인 물체를 지칭하는 등의 상호작용 행동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물체지향적인 방식은 영아의 물체지향적인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한편 어머니의 사회적인 행동은 영아의 사회적인 탐색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Bornstein & Tamis-LeMonda, 1990)와는 다르다. 또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온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전반적인 발달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따뜻하게 돌보는 측면이 잘 수행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양육측면이 부족할 경우 지적인 발달이 뒤떨어지며(Rutter, 1979), '가르치는' 측면의 양육도 돌보는 측면 못지않게 영아에게 썩이 트는 지적발달에 중요하다(Belsky & Most, 1980)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은 남아보다는 여

아에게 보다 물체 지향적이어서 성차를 보이는 한편, 아기의 연령 증가에 따라 가르치는/물체지향적 상호작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감소한다. 또한 13개월 아기의 언어적, 비언어적 발달은 초기의 양육자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어려움으로 충분한 대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유아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연구하였던 것과 달리,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 관찰을 통해 어머니와 영아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양육행동 및 영아기 발달에 관한 후속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동서양 문화에 따른 상호작용 행동 및 영아의 행동발달에 있어서의 독자성(uniqueness) 및 보편성(universality)을 밝힘으로써 아동발달 이론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연구의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분석(macro analysis)을 하였으나, 앞으로 미시적인 분석(micro analysis) 방법을 통해 양육자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연속적으로 분석(sequential analyses)함으로써 영아와 양육자간의 역동적인 발달과정을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문혁준(2005). 자녀양육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2005년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 pp. 15-48. 서울 : 한국아동학회.
- 박성연, Bornstein, M., & 서소정(2004). Unpublished

- manual for the macro-analyses of Korean mother-infant interaction.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 발달 연구실.
- Azuma, H.(1986). *Why study child development in Japan?* In H. Stevenson, H. Azuma,&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pp. 3-12). NY : Freeman.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 1-to 3-to 9-months.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Belsky, J., & Most, R.(1980). From exploration to play : A cross-sectional study of infant free play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630-639.
- Biringen, Z., Emde, R. N., Brown, D., Lowe, L., Myer, S., & Nelson, D.(1999). Emotional availability and emotion communication in naturalistic mother-infant interactions : Evidence for gend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4, 463-478.
- Bornstein, M. H.(1999). A Longitudinal study of infant develop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 Manual written for collaborators describing the collection of data at 2, 5, 13, and 20 months of age. Bethesda : NIH.
- Bornstein, M. H.(2002). *Handbook of parenting*. In M. H. Bornstein(2nd Ed.). Parenting infants(Vol. I , pp. 3-43). London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rnstein, M. H., Azuma, H., Tamis-LeMonda, C. S., & Ogino, M.(1990). Mother and infant activity and interaction in Japan and in United States : A comparative macroanalysis of naturalistic ex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 267-287.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1990). Activities and interaction of mother and their firstborn infant in first six months of life : Covariation, stability, continuity, correspondence, and prediction. *Child Development*, 61, 1206-1217.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Tal, J., Ludemann, P., Toda, S., Rahn, C.W., Pecheux, M.G., Azuma, H., & Vardi, D.(1992). Maternal responsiveness to infants in three societies :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Child Development*, 63, 808-821.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rin, M. H.(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Cote, L., & Bornstein, M.(2001).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acculturation : Behavioral coherence and correspondence in Japanese American and South America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 6, 564-576.
- Fenson, L., Dale, P., Reznick, S. Bates, E., Thal, D. Hartung, J., & Reilly, J.(1993).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San Diago : San Diago State University.
- Gottfried, A. W. (Ed.).(1984). *Home environment and early cognitive development*. Orlando, FL : Academic.
- Hess, R. D., Kashiwagi, K., Azuma, H., Price, G., & Dickson, W.(1980). maternal expectations for mastery of developmental task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5, 259-271.
- Irwin, D. M., & Bushnell, M. M.(1980). *Observational Strategies for Child Study*. NY : Holt, Rinehart, & Winston.
- Kwak, K.(2003)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 : Infants. Seoul : Seoul National Univ. Developmental Science Lab.
- Leeper, C.(2002). Parenting girls and boy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 pp. 189-226). London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gerstee, M., Anderson, D., & Schaffer, A.(1998). Five- and eight-month -old infants recognize their faces and voices as familiar and social stimuli. *Child Development, 69, 1*, 37-50.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Series Ed.),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3rd ed., pp.1-102). New York : Wiley.
- Park, S. Y., & Cheah, C.(2003)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Paper presented at KACS international conference. June, Seoul. Proceeding, pp. 165-188.
- Rutter, M.(1979). Proactive factor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T. W. Rolf(Eds.),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pp. 49-73). Hanover, NH :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1994). Specificity in mother-toddler language-play relation across the second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83-292.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Cypher, L., Toda, S., & Ogino, M.(1992). Language and play at one year : A comparison of toddler and mother in Unites States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19-42.
- Weinberg, M. K., Tronick, E. Z., Cohn, J. F., & Olson, K. L.(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75-188.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8월 29일 채택